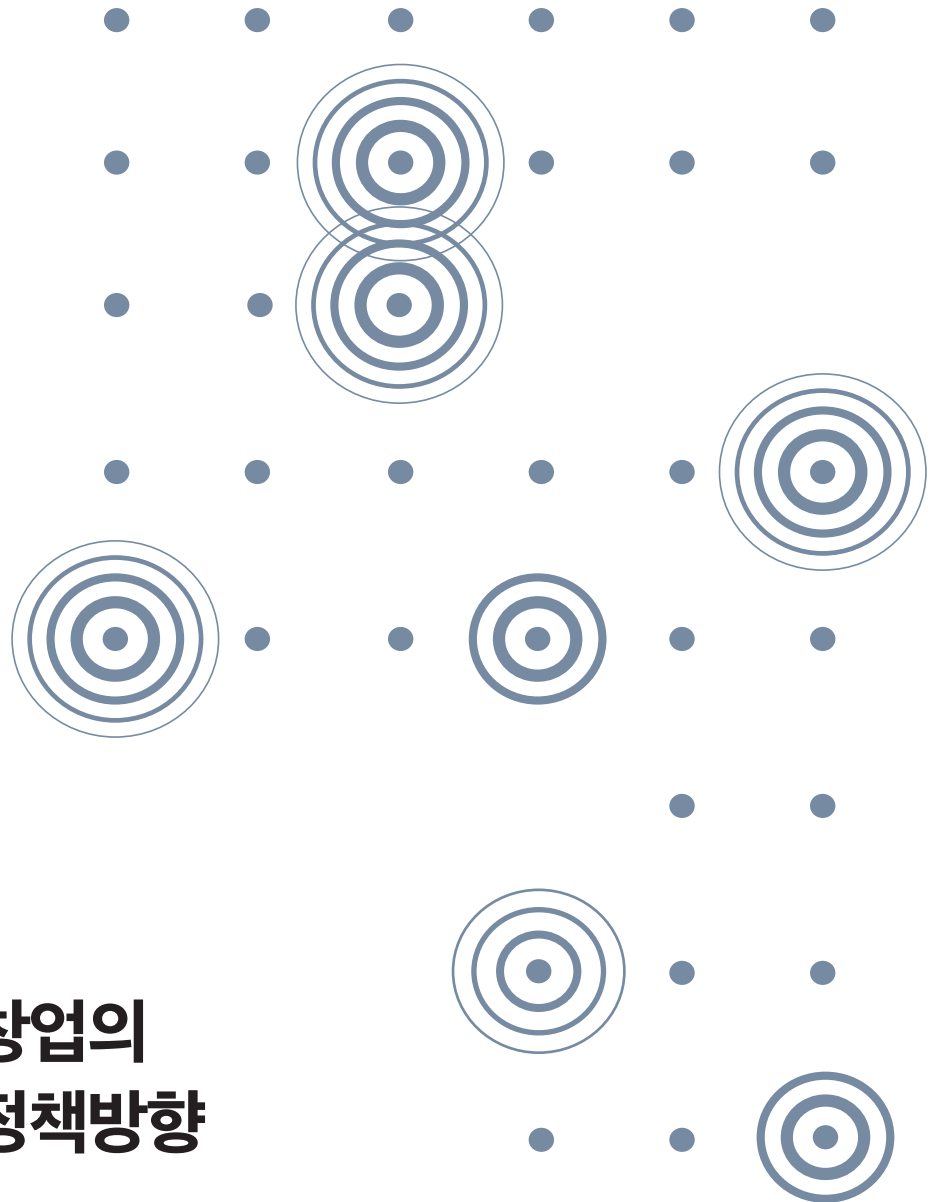


정책리포트

제286호 2019. 10. 28



서울시 법인 창업의 입지 분포와 정책방향

조달호

선임연구위원

유인혜

연구원

서울연구원 정책리포트는 서울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서울의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도시 전반의 다양한 정책 이슈를 발굴하여 분석함으로써
서울시의 비전 설정과 정책 수립에 기여하고자 작성된 정책보고서입니다.

제286호

서울시 법인 창업의 입지 분포와 정책방향

발행인 서왕진
편집인 최 봉
발행처 서울연구원
06756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340길 57
02-2149-1234
www.si.re.kr
ISSN 2586-484X
발행일 2019년 10월 28일

※ 이 정책리포트는 서울연구원의 연구보고서 「서울시 법인 창업의 입지 분포와 정책방향」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이 정책리포트의 내용은 연구진의 견해로 서울특별시의 정책과 다를 수 있습니다.

서울시 법인 창업의 입지 분포와 정책방향

조달호 선임연구위원

02-2149-1233
dhcho@si.re.kr

유인혜 연구원

02-2149-1073
inhye215@si.re.kr

요약	3
I. 서울시 법인 창업의 입지특성 분석 필요성	4
II. 서울시 산업별 법인 창업의 입지특성	6
III. 서울시 법인 창업 입지특성 유형화	13
IV. 정책제언	18

요약

서울시는 지역 불균형 해소 차원에서 서울 전역에 창업지원시설 구축 계획을 발표했다. 지역균형성장을 고려한 이와 같은 서울시 정책은 분명 의미 있는 접근이긴 하지만 산업 집적지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산업에 따라 집적지를 비롯하여 형태와 특성이 다르므로 산업별·집적지별로 다양한 방식의 산업 정책을 취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산업별 법인 창업 집적지·창업 활력을 행정동 수준에서 분석

서울의 경제 성장을 이끄는 데 큰 역할을 담당하는 법인 창업을 대상으로 산업별 집적지 특성과 창업 활력 등을 행정동 수준에서 분석했다. 제조, 출판영상, 금융, 과학기술업 등은 기존 집적지를 중심으로 신흥 집적지가 발달하는 경향을 보였지만 산업별 집적지 세부 특성은 달랐으며,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등은 기존 집적지와 신흥 집적지 간 연관성이 낮게 나타났다.

창업 법인의 지역별 집적 형태·산업 특성에 따라 5개 유형으로 분류 가능

서울시 산업별 법인 창업의 입지특성을 정리하면 5개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역삼1동을 중심으로 하는 강남 도심권 일대와 가산동, 구로3동의 G밸리는 특정 산업에 한정되지 않고, 대부분 업종에 걸쳐 높은 창업 활력을 자랑하고 있었다(유형 1). 소수 업종이지만 기존 집적지를 중심으로 창업이 활발한 곳(유형 2)도 있었고, 도심제조업은 업종별로 거점은 형성되어 있지만, 집적지의 밀집도는 차츰 약해지는 추세를 보였다(유형 3). 산업 관련 인지도는 낮아도 최근 창업이 활발한 지역(유형 4)도 있었지만, 그 외 대부분 지역은 산업 불모지(유형 5) 수준으로 조사되었다.

유형별 차별화된 산업정책 필요, 창동·상계 바이오의료 거점은 재고 바람직

서울시 산업 집적지들은 각기 특성이 다르므로 다양한 방식으로 산업정책을 취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유형 1’은 ‘업종’에 한정 짓기보다는 ‘성장단계별’ 지원으로 전환하고, ‘유형 2’는 지역별 특화업종에 초점을 맞춰 지속적인 지원을, 창업 활력이 떨어지기 시작한 도심제조업(유형 3)은 기존 기업들을 중심으로 혁신모델과 연계한 새로운 지원 방안 마련을 고민해야 할 것이다. ‘유형 4’는 창업이 활발한 업종을 지역 주력 사업으로 육성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유형 5’는 지역 자원 및 대학과 연계한 통합적 관점에서 산업 정책을 발굴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서울시 6대 신산업 거점 계획 중 양재·개포와 G밸리는 업종에서의 오픈이노베이션과 스케일업 전략을 마련하고, 창동·상계는 산업 불모지이며 지역산업 자원 또한 미미하므로 바이오의료산업의 거점으로 육성하는 계획을 재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I. 서울시 법인 창업의 입지특성 분석 필요성

I 법인 창업 입지특성은 지역균형성장 계획의 기초자료

서울에선 ‘창업’이 지역 성장을 견인 …개인사업체보다 법인 창업이 중요

- 서울시는 ‘창업’에 의한 지역 성장이 활발한 편
 - 지역의 산업 성장을 견인하는 요인으로서는 새로운 기업의 생성, 기존 기업의 확장, 외부 기업의 이전 등이 있음
 - 이 중 서울시는 ‘창업’에 의한 지역 성장이 활발한 편으로, 창업은 지역의 고용성장과 혁신 등에 긍정적으로 작용
- 법인 창업은 개인사업체보다 서울 경제 성장에 더 큰 역할 담당
 - 2016년 기준, 서울시 사업체 중 법인의 사업체 수 비중은 20.1%에 불과하나 종사자 비중은 61.9%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
 - 반면, 서울시에서 창업한 개인사업체의 38.7%가 자가고용 형태의 1인 기업
 - 생계형 중심의 개인 창업보다는 혁신과 연관된 법인 창업이 서울의 경제 성장을 이끄는 데 더 큰 역할을 담당하는 것으로 나타나 법인 창업에 관심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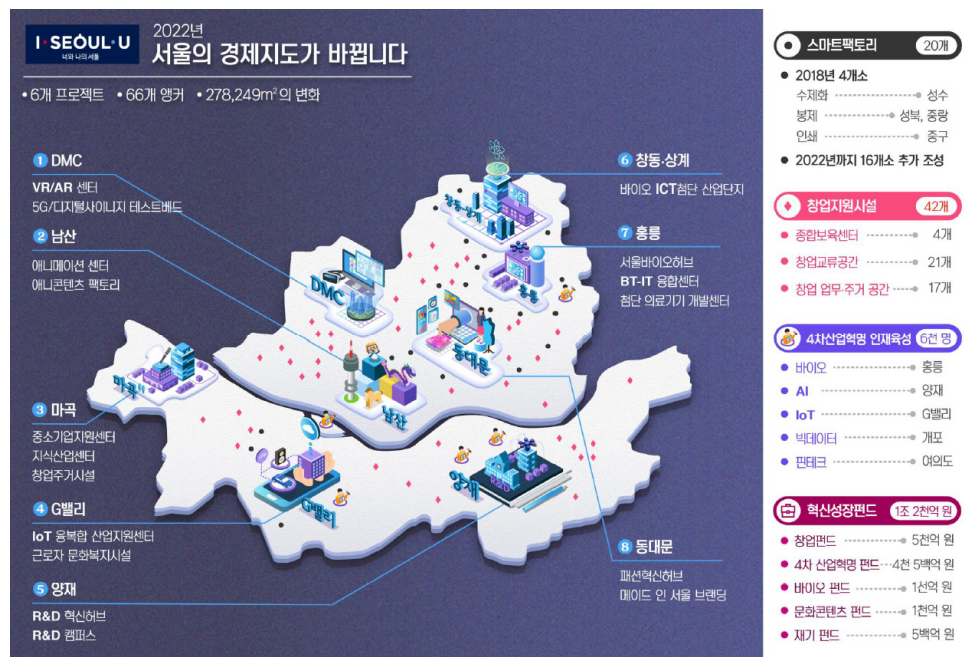
서울시 창업지원시설 2배 확충 계획 발표, 대상지는 미정

- 서울시는 지역 불균형 해소 차원에서 서울 전역에 창업지원시설 구축 계획 발표
 - 서울시는 ‘서울 미래 혁신성장 프로젝트(2018년)’에서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6대 신산업 거점 조성 계획과 더불어 혁신 창업생태계 기반 마련의 하나로 창업지원시설을 현재의 약 2배 수준(2017년 48개 → 2022년 90개)으로 확충할 계획을 발표
 - 현재까지 창업보육센터 4곳만이 입지가 결정됐을 뿐, 나머지 시설은 후보지 물색 중
 -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는 지역 불균형 해소를 목적으로 비강남·낙후지역인 서울 강북 지역과 강서 지역에 창업지원시설 마련을 고려 중

창업지원시설 추가 구축 시 산업별 법인 창업의 입지특성 고려 필요

- 산업 클러스터는 관련 산업과 상호연결된 기업·기관이 지리적으로 집중해 있을 때 시너지 최고
 - 서울시가 지역균형성장 차원에서 창업이 미미한 지역에 창업지원시설을 집중시키는 것은 의미 있는 정책
 - 그러나 집적효과가 큰 산업에는 이러한 접근 방식이 부적합할 소지가 있으며, 산업 클러스터의 시너지 창출 효과는 관련 산업과 상호연결된 기업·기관이 지리적으로 집중해 있을 때 가장 높게 발현

- 창업지원시설 구축에도 산업별 행정동 단위의 법인 창업 집적지를 고려하여 계획에 반영 필요
 - 산업별 법인 기업의 집적지를 분석하여 창업지원시설 구축에 활용한다면 정책 효율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
 - 산업별로 특징이 다르고, 그에 따라 입지결정요인도 서로 다를 것이기 때문
 - 산업별 집적지를 행정동 수준에서 제시해 서울시가 구축하려는 창업 인프라의 입지·방향 결정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접근



[그림 1] 서울 미래 혁신성장 프로젝트 창업지원시설 구축 계획(안)

출처: 서울시, 2018, 서울 미래 혁신성장 프로젝트(2018~2022년) 발표자료

II. 서울시 산업별 법인 창업 입지특성

I 산업별 법인 창업 집적지·창업 활력을 행정동 수준에서 파악

서울시 대표 산업의 신흥 집적지¹⁾와 기존 집적지, 창업 활력 등을 분석

- 창업기업과 기존 기업을 구분하여 신흥 집적지와 기존 집적지를 분석
 - 신흥 집적지 분석은 2016년과 2017년에 서울시에서 창업한 법인체가 대상
 - 기존 집적지 분석은 2015년 기준 서울시 소재 법인체를 대상으로 진행
- 서울시 특화산업과 유망산업으로 분류하여 업종 세분화
 - 서울시 특화산업은 조건에 부합하는 31개 업종을 대상으로 집적지 관련 분석을 진행
 - 서울시 유망산업은 8대 신성장동력산업²⁾과 4대 도심제조업³⁾으로 구성
 - 단, 도소매업(46~47)⁴⁾은 창업 법인 수는 가장 많지만 생존형 창업이 대다수로 시너지 창출과 관련된 산업 집적지 도출에 방해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어 제외
- 집적지 선정은 행정동 수준에서 법인 수 기준으로 '지리적 집중도'⁵⁾와 '특화도'⁶⁾를 고려하여 접근
 - 집적지는 행정동 단위에서 해당 산업(한국표준산업분류 제9차 기준)의 법인 수를 기준으로 '지리적 집중도'와 '특화도'의 값을 분석하여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해당
- 신흥·기존 집적지 분석을 바탕으로 산업별 집적지와 비집적지, 집적지 변화 여부, 집적지별 창업 활력 정도 등을 파악
 - 분석 결과는 중분류 단위에서 세부적으로 살펴보고, 대분류 단위로 통합하여 재분석

1) 산업 '집적지'란 특정 분야에서 상호 연관된 기업과 관련 기관이 지리적으로 집중되어 있는 지역을 의미

2) 서울시 8대 신성장동력산업: IT융합 산업, 비즈니스 서비스 산업, 금융 산업, 콘텐츠 산업, 디자인·패션 산업, 바이오·메디컬 산업, 관광·MICE 산업, 녹색산업

3) 서울시 4대 도심제조업: 의류·봉제, 귀금속, 인쇄, 기계금속

4) 이하 산업명 뒤의 숫자는 모두 한국표준산업분류(KSCI) 기호를 의미

5) '지리적 집중도(concentration)'는 행정동별로 입지하고 있는 특정 산업의 법인 비중(법인 수 기준)으로, 행정동별 절대적 규모의 비교 분석이 가능

- 지리적 집중도(%) = i 산업의 j 행정동 소재 법인 수 / i 산업의 서울시 전체 법인 수 $\times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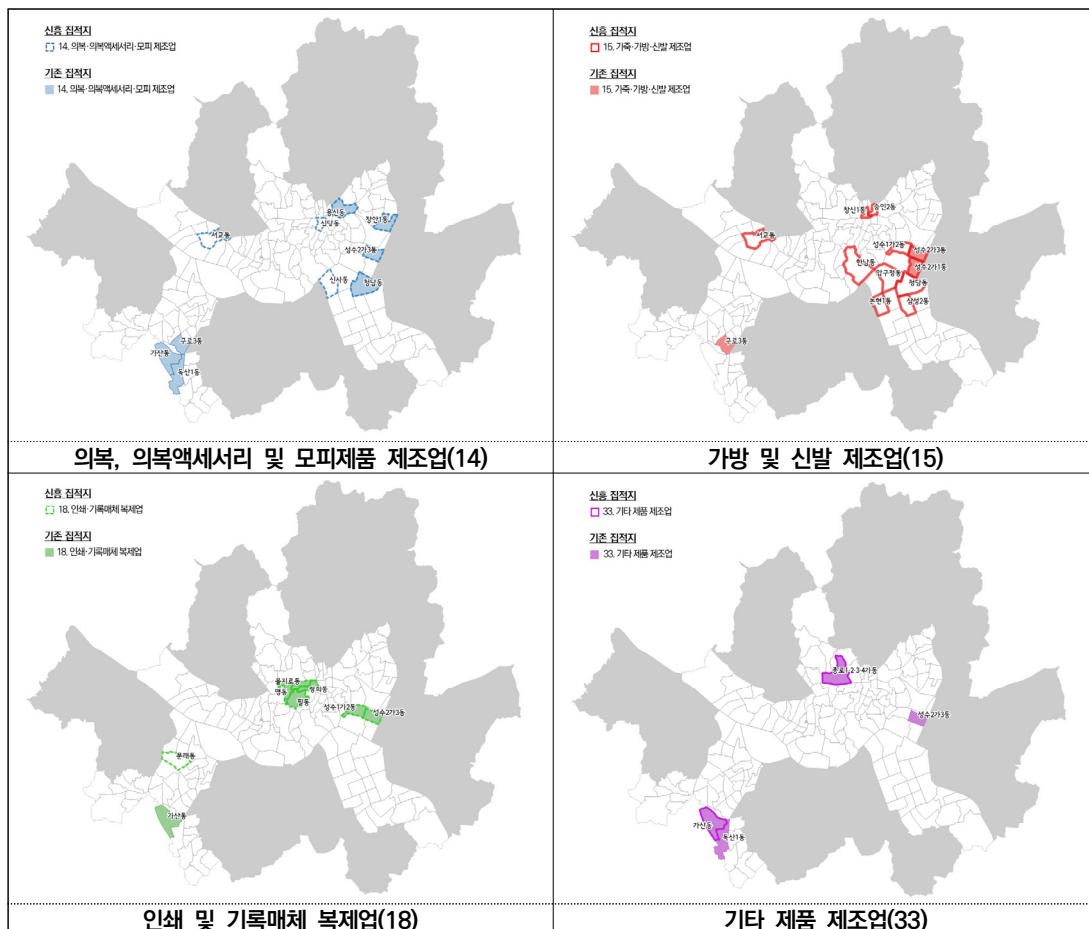
6) '특화도(specialization)'는 지역 내 산업의 특화된 정도를 설명하는 용어로, 이 연구에서는 입지계수(location quotient: LQ, 이하 'LQ')를 활용하여 특화도를 산출

- 특화도(LQ) = $\{(j\text{행정동의 } i\text{산업 법인 수} / j\text{행정동의 전체 산업 법인 수}) / \{(서울시 } i\text{산업 법인 수} / \text{서울시 전체 산업 법인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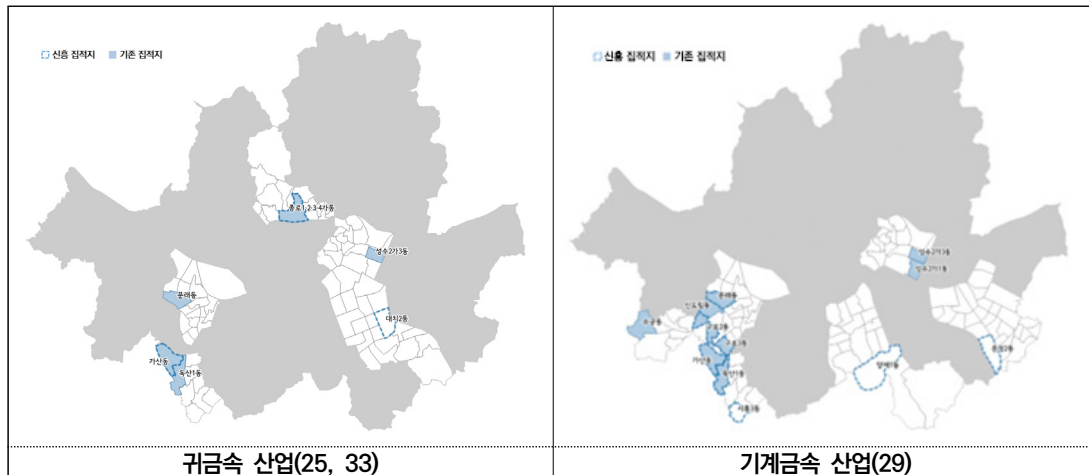
I 제조, 출판영상, 금융, 과학기술업은 기존 집적지와 신흥 집적지가 일치

기존 집적지 중심으로 신흥 집적지 발달...산업별 집적지 특성은 달라

- 도심제조업을 포함한 대부분 제조업은 세부업종별로 고유 집적지가 뚜렷하게 형성되어 있으며, 창업 활력 또한 기존의 산업 집적지를 중심으로 높게 나타나는 것이 특징
 - 의복(14), 가죽(15), 인쇄(18), 귀금속 제품을 포함한 기타 제품 제조업(33) 등은 동대문 패션타운과 남대문 시장 등 소비시장의 배후 지역을 중심으로 세부업종마다 고유의 산업 집적지를 형성하고 있으며, 기존 집적지와 신흥 집적지가 대체로 일치하는 경향
 - 준공업지역인 성수2가3동은 의복, 가죽, 인쇄, 기타 제품 제조업 등 전 업종에서 집적지로 선정
 - 서교동은 의복, 가죽 관련 업종에서, 문래동은 인쇄 관련 업종에서 신흥 집적지로 등장
 - 기계금속산업(29) 또한 기계금속산업의 메카인 문래동과 영등포 일대를 중심으로 높은 창업 활력을 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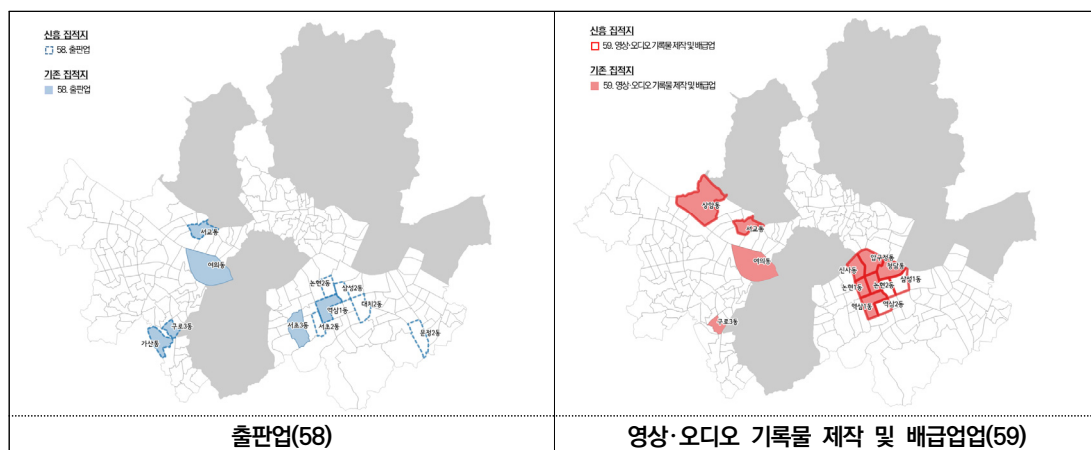


[그림 2] 서울시 제조업 법인 창업의 입지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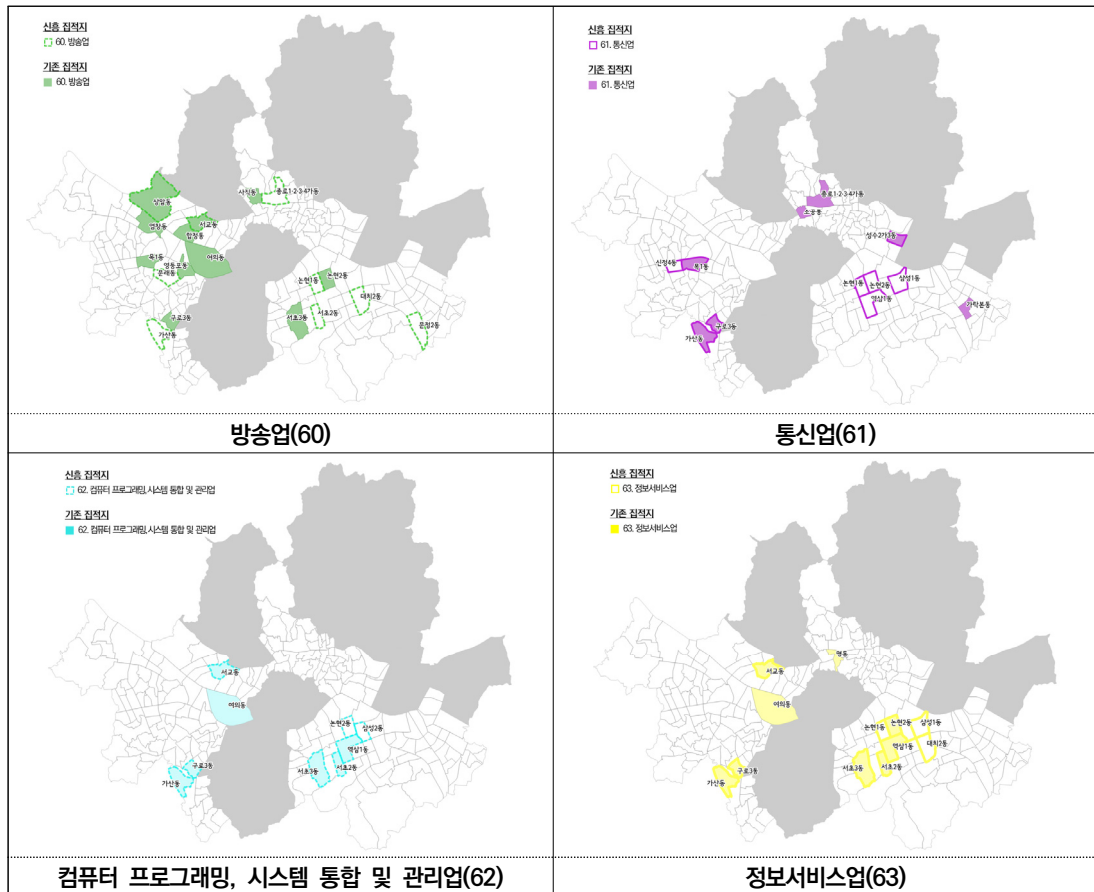


[그림 2](계속) 서울시 제조업 법인 창업의 입지특성

-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은 기존 집적지와 신축 집적지가 일치하는 경향을 나타내며, 강남 일대, 상암 및 서교동, 가산동과 구로3동이 대표적 집적지
 - 상암동 및 서교동, 역삼1동을 비롯한 인근 행정동, 가산동과 구로3동으로 대표되는 G밸리 일대가 기존 집적지면서 높은 창업 활력 자랑
 -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59)은 역삼1동과 인근 행정동에 걸쳐 산업 집적을 강화
 - 과거 방송국이 있었던 여의동은 창업 활력이 저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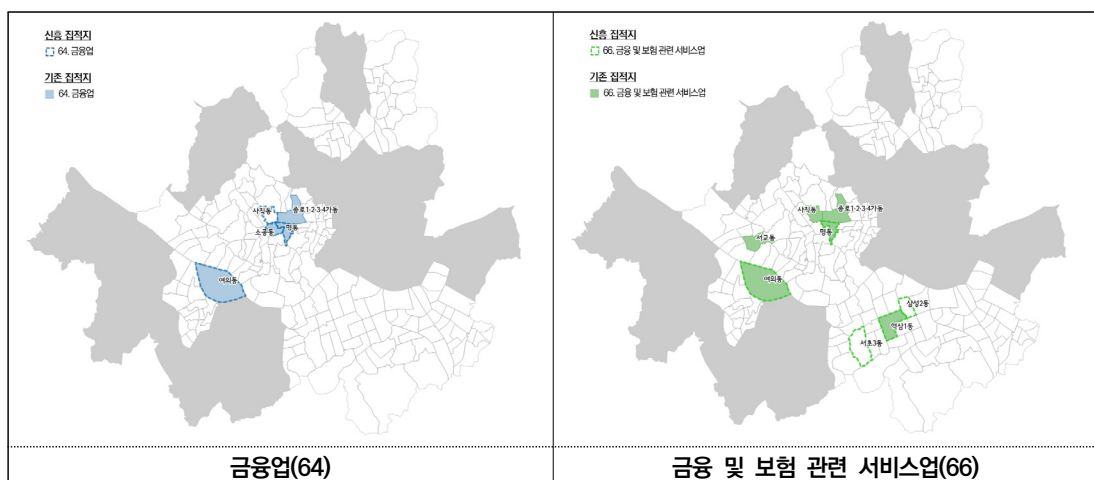


[그림 3] 서울시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법인 창업의 입지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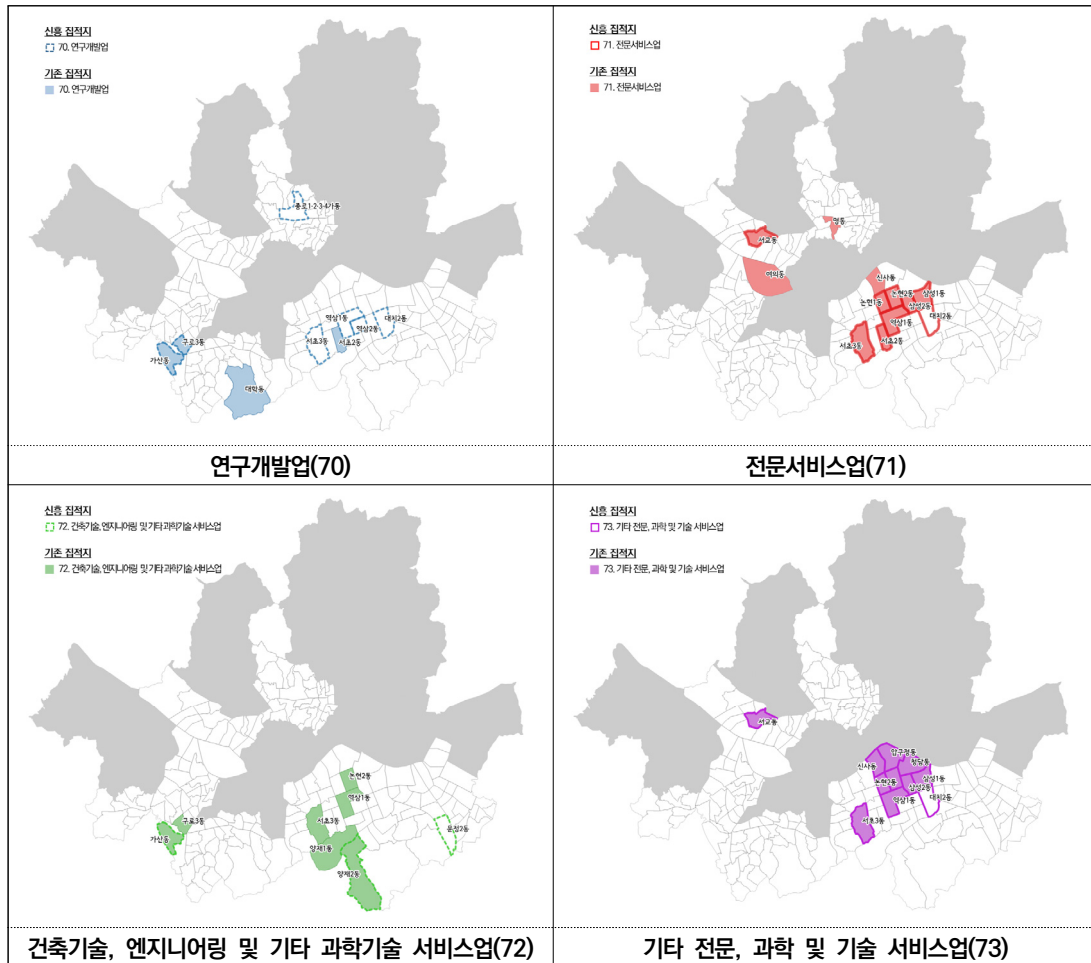
[그림 3](계속) 서울시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법인 창업의 입지특성

- 금융업은 여전히 기존 집적지를 중심으로 산업 집적이 한층 강화되는 경향
 - 금융지구인 여의동과 더불어 명동, 종로1·2·3·4동, 역삼1동에 금융업 관련 업종이 집적
 - 창업 활력 또한 기존 집적지들을 중심으로 활발



[그림 4] 서울시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법인 창업의 입지특성

-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은 역삼1동과 인접 행정동에서 산업 집적 압도적
 - 대부분 세부업종이 기존 집적지인 역삼1동을 포함한 강남 도심지 일대에서 높은 창업 활력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조사
 - 가산동과 구로 3동은 연구개발업(70)과 건축기술, 기타과학기술(72)에서 집적 강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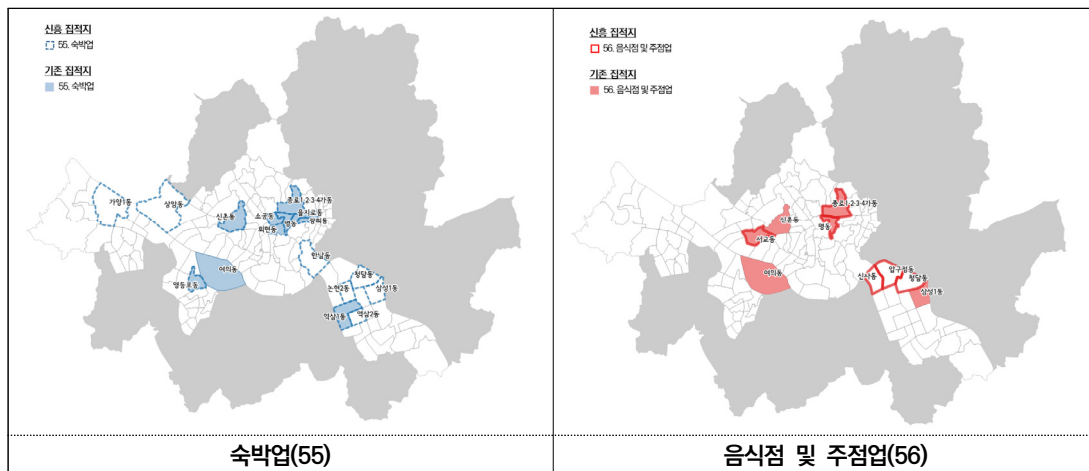


[그림 5] 서울시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법인 창업의 입지특성

I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은 기존 집적지와 신흥 집적지 간 연관성 저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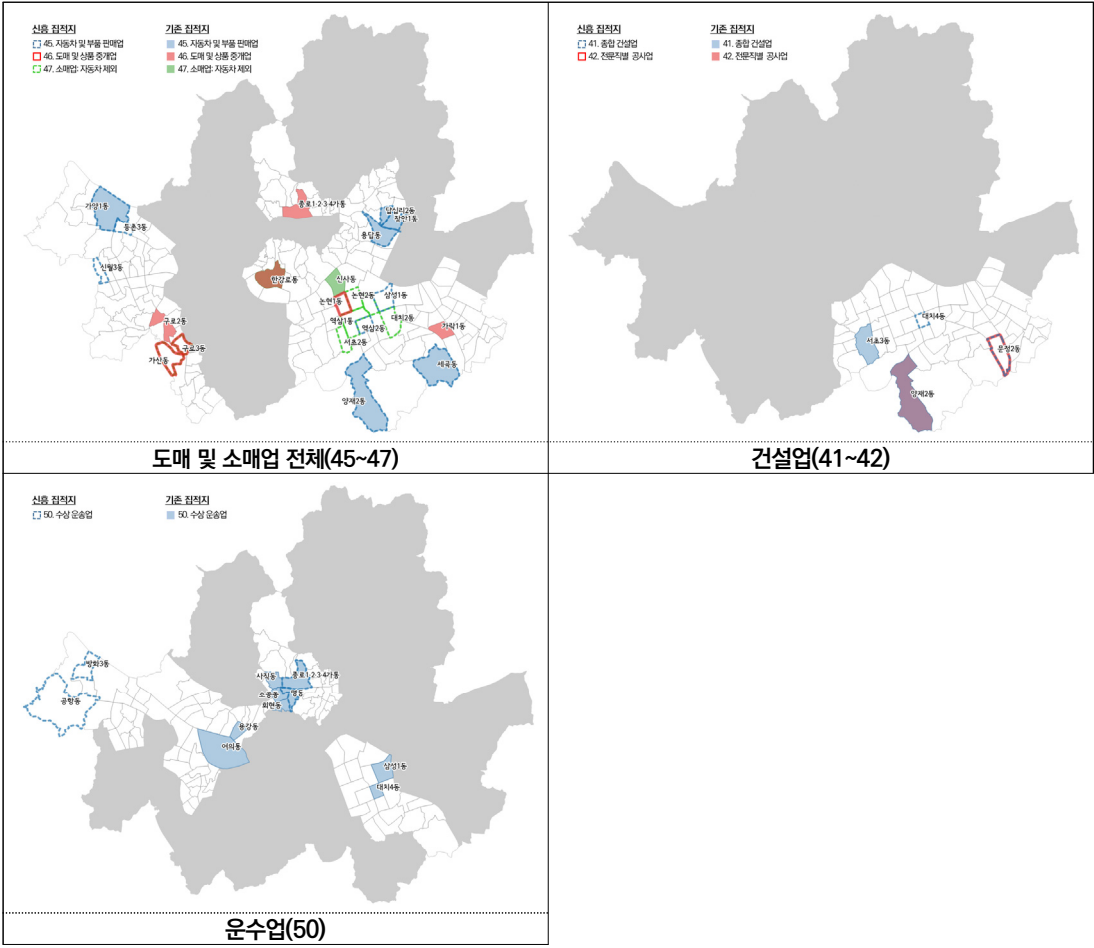
일부 업종은 기존 집적지 쇠퇴하고 강남 일대에 신흥 집적지 형성

- 숙박 및 음식점업은 기존 집적지를 중심으로 높은 창업 활력을 자랑하지만, 역삼1동을 중심으로 하는 신흥 집적지 형성
 - 숙박 및 음식점은 명동과 종로1·2·3·4동을 중심으로 하는 강북 도심지 일대, 홍대 상권인 서교동, 여의도의 유일한 행정동인 여의동, 역삼1동 및 삼성1동이 기존 집적지
 - 기존 집적지에서 여전히 높은 창업 활력을 볼 수 있지만, 강남 일대는 역삼1동부터 한남동 까지 신흥 집적지가 광범위하게 확대되면서 집적 기능이 강화되는 경향



[그림 6] 서울시 숙박 및 음식점업 법인 창업의 입지특성

- 자동차 관련 판매업은 기존 집적지를 중심으로 높은 창업 활력을 자랑하는 반면 도매업과 소매업은 기존 집적지와 간극 존재
 - 자동차 관련 판매업은 땅값이 싼 서울 외곽에 기존 집적지가 형성되었으며, 높은 창업 활력 유지
 - 도매업과 소매업은 기존 집적지보다는 구매력이 높은 지역을 선호
- 건설업은 기존 집적지가 아닌 문정2동이 신흥 집적지로 선정
- 운수업은 종로, 필동을 제외한 기존 집적지 쇠퇴, 방화동과 공랑동을 중심으로 창업 활발



[그림 7] 서울시 도매 및 소매업, 건설업, 운수업 법인 창업의 입지특성

Ⅲ. 서울시 법인 창업 입지특성 유형화

Ⅰ 행정동 424개 중 특정 지역에 법인 창업 집적지 쏠림현상 발생

역삼1동과 인접 행정동에 다양한 산업의 집적지 형성

- 서울시 창업 법인 중 약 19%가 역삼1동 및 인접 지역에 초집중
 - 역삼1동에 서울시 창업 법인의 약 7%가 초집중
 - 서울시 창업 법인은 총 62,693(2016년~2017년 기준)개⁷⁾이며, 그중 4,305개의 창업 법인이 역삼1동에 위치
 - 역삼1동은 다양한 산업의 기존 집적지이면서, 창업 활력도 여전히 높은 지역
 - 역삼1동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인접한 행정동으로 산업 집적지가 확대
 - 역삼1동과 인접한 대치2동, 논현2동, 삼성2동, 논현1동, 삼성1동, 역삼2동, 청담동에 서울시 전체의 약 12%에 해당하는 7,504개의 창업 법인이 입지
 - 특히, 산업 기반이 약한 업종도 역삼 1동을 비롯한 인접 지역에서 높은 창업 활력을 시현
 - 이들 지역은 산업에 따라 기존 집적지인 경우도 있지만, 최근 들어 산업 기반이 약한 업종에서도 높은 창업 활력을 보이면서 신흥 집적지로 부상
- 소수 업종이 아닌 다양한 업종에서 신흥 집적지로 선정된 역삼1동 및 그 일대 행정동들
 - 위에서 언급된 강남 도심지 일대의 행정동은 제조업·금융업과 같이 기존 집적지의 산업 기반이 강한 일부 업종을 제외한 대부분 업종의 신흥 집적지로 선정되면서 높은 창업 활력을 자랑
 - 해당 특화산업(8):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 서비스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창작, 예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 해당 유망산업(6): △IT융합산업, △비즈니스서비스업, △콘텐츠 산업, △디자인패션 산업, △관광·MICE 산업, △바이오메디컬 산업

G밸리가 보유한 기존 산업 기반을 바탕으로 높은 창업 활력을 보이는 가산동·구로3동

- 가산동과 구로3동도 법인 창업의 집적지
 - G밸리로 대표되는 가산동과 구로3동도 2개 행정동에 서울시 전체의 약 7%에 해당하는 창업 법인이 집적되어 있는 상태
 - 가산동은 2,450개, 구로3동은 1,868개의 창업 법인이 입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
 - 가산동과 구로3동 또한 다양한 업종에서 집적지를 형성

7) 한국기업데이터 기준 2016년~2017년 신설법인은 총 62,797개(2016년 31,532개, 2017년 31,265개). 이 중 주소지 관련 정보가 누락된 법인 104개를 제외한 62,693개(누락 사업체 수: 2016년 103개, 2017년 1개)를 대상으로 산업별 입지 분포 현황을 분석

- 해당 특화산업(2):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해당 유망산업(6): △IT융합산업, △콘텐츠 산업, △바이오메디컬 산업, △녹색 산업, △귀금속 산업, △기계금속 산업

- 가산동과 구로3동은 기존의 산업 집적지를 중심으로 높은 창업 활력을 보이는 것이 특징
 - 가산동과 구로3동도 다양한 산업 부문에서 집적지로서 우위를 나타내고 있지만, 강남 도심지의 집적지와 달리 인접 행정동으로의 확대보다는 기존 집적지에 한정되어 산업 집적을 강화하는 경향

[표 1] 강남 도심지 일대 및 G밸리의 창업 법인 현황

(단위: 개, %)

구분	행정동	창업 법인	
		법인 수	전체 대비 비중
강남 도심지 일대 산업 집적지	역삼1동	4,305	6.9
	대치2동	1,315	2.1
	논현2동	1,232	2.0
	삼성2동	1,230	2.0
	논현1동	1,182	1.9
	삼성1동	935	1.5
	역삼2동	927	1.5
	청담동	683	1.1
	소 계	11,809	18.8
G밸리 일대 산업 집적지	가산동	2,450	3.9
	구로3동	1,868	3.0
	소 계	4,318	6.9
합계		16,127	25.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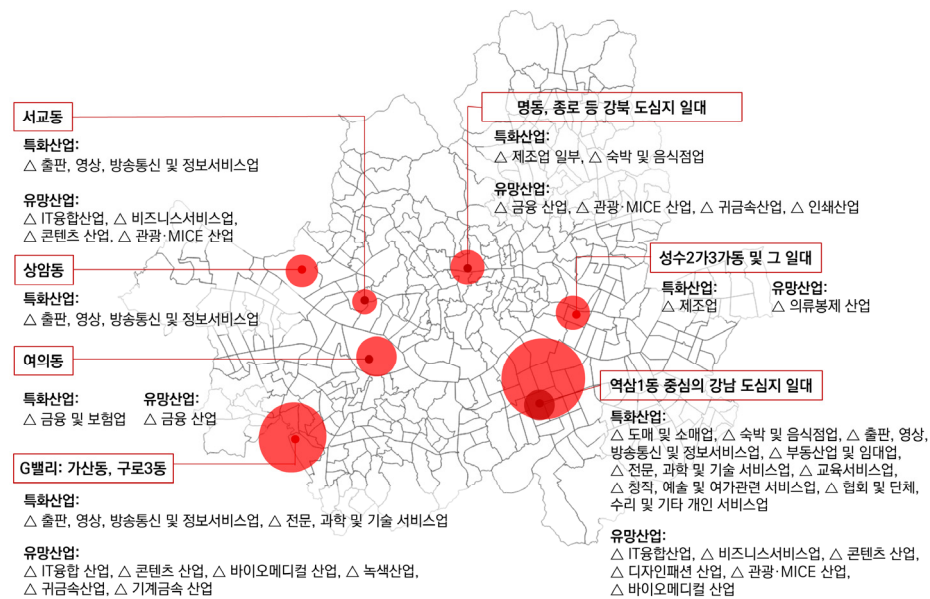
주: 분석에 이용된 서울시 창업 법인(2016~2017년)은 총 62,693개

성수2가3동 비롯한 일부 행정동은 지역 산업 보유 ... 나머지 지역은 산업 불모지

- 소수 업종을 중심으로 산업 거점을 형성하고 있는 행정동도 일부 존재
 - 성수동은 도심 인접 유일의 준공업지역으로, 서울시 제조업과 관련된 업종들이 성수2가3동 및 그 일대의 기존 집적지를 중심으로 높은 창업 활력을 자랑
 - 명동, 종로, 을지로, 필동을 포함한 강북 도심지 일대의 행정동은 의복과 귀금속, 인쇄 등 제조업별 기존 집적지가 각각 형성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며, 그 외에도 구도심지로서 금융 산업, 숙박 및 음식점업, 관광 산업 등에 특화
 - 서교동은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콘텐츠 산업 포함)을 중심으로 IT융합산업, 비즈니스서비스업, 관광 산업의 산업 집적을 더욱 강화

- 상암동은 2002년부터 서울시가 미디어 산업단지(DMC)로 개발·발전시킨 만큼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분야에 특화
- 여의동은 여의도의 1개 밖에 없는 행정동으로, 금융지구의 특성을 반영하여 금융 산업에 특화

○ 그러나 그 외 나머지 지역은 산업 불모지 수준



[그림 8] 서울시 창업 법인의 산업 집적지 특성

I 창업 법인의 지역별 집적형태·산업 특성에 따라 5개 유형으로 구분

‘유형 1’은 특정 산업에 한정되지 않고, 대부분 업종에 걸쳐 창업이 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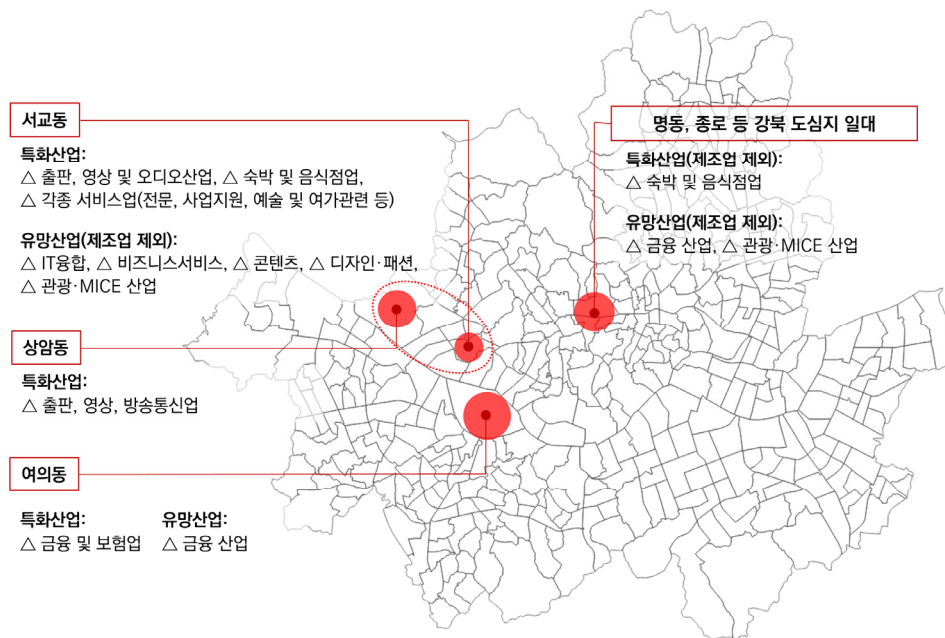
- 지역적으로는 역삼1동을 중심으로 하는 강남 도심권 일대와 G밸리가 이에 해당
 - 강남 도심권 일대는 다양한 업종이 역삼1동과 인접 행정동을 중심으로 산업 거점을 확장하고 있는 것이 특징
 - 가산동, 구로3동의 G밸리 또한 다양한 업종에 걸쳐 높은 창업 활력을 시현



[그림 9] '유형 1'의 해당 행정동 및 업종

'유형 2'는 소수 업종이지만 기존 집적지를 중심으로 여전히 높은 창업 활력을 자랑

- 유형 2는 유형 1만큼은 아니지만 최소 1개 이상의 소수 업종을 중심으로 산업 거점이 형성되어 있으며, 소수 업종임에도 불구하고 창업으로 새로운 수혈이 지속되는 것이 특징
 - 대표적인 지역으로 △ 금융 산업은 여의동, △ 방송, 영상 관련 산업은 상암동, △ 출판, 영상 및 오디오 관련 산업은 서교동, △ 관광 및 마이스(MICE) 산업(제조업은 별도)은 명동 및 종로 등이 해당



[그림 10] '유형 2'의 해당 행정동 및 업종

‘유형 3’은 기존에 산업 거점이 형성되어 있으나 창업이 쇠퇴하기 시작, 도심제조업 해당

- 유형 3에 해당하는 도심제조업은 기존 집적지를 중심으로 창업 활력이 여전히 높지만, 법인 창업 증감률을 보면 창업이 쇠퇴하기 시작
 - 녹색/디자인/바이오 관련 산업은 23.5%, 융합 산업은 14.2%가 성장한 반면, 도심제조업은 10.4% 감소함에 따라 향후에도 성장가능성이 저조할 것으로 예상
 - 유형 3에 해당하는 대표 지역으로는 의류·가죽·봉제는 성수2가3동 중심의 성수동 일대, 귀금속은 종로 일대, 인쇄는 필동 등 을지로 일대, 기계는 구로, 문래동 등 서남권 일대가 해당
 - 업종별 고유 집적지가 형성되어 있지만, 산업 거점으로서의 역할은 차츰 약해지는 추세

[표 2] 2018년 서울시 산업별 법인 창업 증감률

(단위: %)

산업 종류	2018년 법인 창업 증감률	산업 종류	2018년 법인 창업 증감률
도소매	5.8	녹색/디자인/바이오	23.5
비즈니스서비스	5.0	도심제조	-10.4
금융	-0.4	관광 · MICE	4.0
융합	14.2	숙박 및 음식점	-0.5
콘텐츠	8.0	그 외 기타	0.0

‘유형 4’는 산업 관련 인지도는 낮으나 최근 창업이 활발, 그 외 산업 불모지는 ‘유형 5’로 분류

- 유형 4는 산업 기반이 약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들어 창업은 활발
 - 유형 4는 기존에 산업 거점으로서 역할 및 인지도는 저조하지만 최근 들어 창업은 활발한 것이 특징
 - 유형 4에 해당하는 지역으로는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에 양재2동, 세곡동, 가양1동, 등촌3동, 신월3동이 해당되고, 최근 법조타운이 들어선 문정동은 ‘건설업’, ‘출판, 영상, 방송통신업’, ‘부동산업’, ‘각종 서비스업(전문 서비스업, 사업지원 서비스업 등)’에서 창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특징
 - 그 외 문래동은 방송업, 신정4동과 목1동은 통신업, 공랑동과 방화3동은 수상 운송업에서 창업이 강세
- 유형 5는 산업 불모지
 - 유형 1에서 유형 4까지의 지역을 제외한 지역이 유형 5에 해당되는데, 이러한 지역에 창업 지원시설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신중한 판단과 전략 동반이 필요
 - 서울의 강북 지역 중 일부 행정동을 제외한 대부분의 행정동이 산업 불모지에 해당

IV. 정책제언

I 유형별 차별화된 산업정책 필요, 창동·상계 바이오의료 거점은 재고

산업 집적지별 특성 모두 달라 … 유형별 특성 고려한 산업정책 바람직

- 서울시 산업 집적지 5개로 세분화된 특징 보유, 집적지 유형별 특성에 따라 차별화된 산업 정책 필요
 - 대다수 업종에서 창업이 활발한 집적지 유형(유형 1)은 ‘업종’에 제한을 두지 않는 ‘성장 단계별’ 지원으로 전환
 - 1개 이상의 소수 업종을 중심으로 산업 거점 역할을 담당하는 집적지 유형(유형 2)은 지역별 특화업종에 초점을 맞춰 지속 지원
 - 창업 활력이 떨어지기 시작한 도심제조업의 집적지들(유형 3)은 기존 기업들을 중심으로 혁신모델과 연계한 새로운 지원 방안 마련
 - 기존에 산업 거점으로서 역할과 인지도는 낮아도 최근 들어 창업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집적지 유형(유형 4)은 창업이 활발한 업종을 지역의 주력 산업으로 육성할 것을 고려
 - 산업 불모지에 해당하는 지역(유형 5)은 지역 자원과 연계한 통합적 관점에서 산업 정책 발굴
- 서울시 6대 신산업 거점 계획⁸⁾ 일부 조정 필요
 - 양재·개포와 G밸리는 대다수 업종에서 창업이 활발하게 발생하므로 업종이 아닌 성장 단계별 지원 정책 고려
 - 다양한 업종에서 오픈 이노베이션 추진 및 창업 이후 기업 성장을 위한 스케일업 전략 필요
 - 창동·상계는 산업 불모지에 해당하고, 지역 자원 또한 미미하므로 바이오의료산업의 거점으로는 재고려 필요

주요 추진전략

주요 과제	추진전략
집적지의 유형별 특성에 따라 차별화된 지역별 산업 정책 수립	- ‘유형 1’ 업종이 아닌 ‘성장단계별’ 지원으로 전환
	- ‘유형 2’ 지역별 특화업종에 초점을 맞춰 지속 지원
	- ‘유형 3’ 혁신모델과 연계한 새로운 활성화 방안 마련
	- ‘유형 4’ 창업이 활발하게 일어나기 시작한 업종을 지역의 주력산업으로 육성 고려
	- ‘유형 5’ 지역 자원, 역량과 연계한 산업정책 수립
서울시 6대 신산업 거점 계획 일부 조정 검토	- 양재·개포와 G밸리는 업종이 아닌 성장단계별 지원 정책 고려 - 창동·상계의 바이오의료산업 거점 계획 일부 재고려 필요

8) ▲홍릉(바이오의료 허브) ▲마곡(R&D 융복합) ▲G밸리(IoT 중심 산업혁신활동공간) ▲DMC(문화콘텐츠+VR/AR 등 신기술 접목 고도화) ▲양재·개포(AI, 빅데이터 등 신산업 R&D 캠퍼스) ▲마포(블록체인·핀테크 등 금융서비스 벤처기업 육성)

I 집적지 유형별 특징 상이, 다양한 방식의 산업정책 취할 필요

산업 집적지 '유형 1'은 업종이 아닌 '성장단계별' 지원으로 전환

- 성장단계를 3단계로 구분하여 필요사항 지원
 - 유형 1은 다양한 업종이 밀집되어 분포하고 있고 산업 생태계도 일정 수준 형성되어 있으므로, 특정 업종의 창업 단계에 있는 기업만을 지원하기보다는 다양한 업종을 '성장단계별'로 지원하는 산업 정책이 필요
 - 대표 행정동으로는 강남 도심권 일대(역삼1동과 주변 지역)와 G밸리(가산동, 구로3동)가 해당
 - 서울시 6대 신산업 거점 중에서는 G밸리와 양재·개포 지역이 해당하는데, 양재·개포 지역은 법인 창업의 신흥 집적지에서는 제외되어 있지만, LG전자, 삼성전자, KT, 현대기아차 등 대기업 및 중소기업의 기업부설연구소가 다수 입지
 - 기업의 성장단계는 창업 초기 → 성장 → 회수 등 크게 3단계로 구분, 단계별로 법인 기업이 필요로 하는 수요를 파악하여 산업 정책을 시행하는 것이 필요
 - 창업 초기 단계: 아이디어 실현 단계에 있는 기업을 포함한 창업 초기 기업에 소규모의 창업 자금, 창업 공간, 창업 교육, 창업 멘토, 시제품 제작 및 시험·인증 등을 지원
 - 성장 단계: 기업의 규모가 커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자금 및 공간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므로 자금 확보 기회 제공, 글로벌 시장 진출 지원, 제품 또는 서비스 고도화를 위한 자금·기술·경영 측면의 지원
 - 회수 단계: 각종 규제 해소 및 제도 완화를 위한 지원 정책 마련
 - 이러한 단계별 지원은 공공부문이 직접 추진하기에는 전문 지식 부족 및 지속성 확보의 어려움이 있으므로 액셀러레이터와 같은 민간 창업지원기관과 협력하는 것이 중요
 - 그 외에도 서울시는 오픈이노베이션 환경 조성 및 미래첨단산업 발전을 위한 테스트베드 구축 등의 노력 필요

산업 집적지 '유형 2'는 지역별 특화업종에 초점을 맞춰 지속적으로 지원

- 특화산업별 지속적이고 일관성 있는 클러스터 정책 시행
 - 유형 2에는 최소 1개 이상의 소수 업종을 중심으로 산업 거점이 이미 형성되어 있으므로, 산업 집적지별 특화업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정책을 시행
 - 대표 행정동으로는 여의동(여의도)은 '금융 산업', 상암동(DMC)은 '방송, 영상 산업', 서교동은 '출판, 영상 및 오디오 산업', 명동 및 종로는 '관광·MICE 산업'이 이에 해당
 - 서울시 6대 신산업 거점 중에서는 DMC, 마포·여의도 지역, 마곡이 유형 2에 해당

- 서울시는 지역별 특화 업종을 육성하기 위해 다양한 창업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앞으로도 일관성 있게 추진하는 것이 중요

산업 집적지 ‘유형 3’은 혁신모델과 연계한 새로운 활성화 방안 마련

- 도심제조업의 창업 활력이 떨어지기 시작함에 따라 창업보다는 기존 기업에 대한 지원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
- 기존 앵커시설 역할 강화 지원
 - 서울시는 2022년까지 총 3,12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연차별로 4~6개의 제조업 관련 스마트앵커를 건립할 계획
 - 시범사업으로 2019년 12월까지 성동구 수제화 스마트앵커, 중랑구 면목동 봉제 스마트앵커, 성북구 월곡동 봉제 스마트앵커, 중구 예관동 인쇄 스마트앵커 등 총 4개를 건립할 예정
 - 기존의 도심제조업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건립 예정 앵커시설의 역할을 강화할 필요
 - 업종별로 차별화된 앵커시설 모니터링 계획을 수립해 운영상의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야 할 것
- 혁신 비즈니스 모델과 연계 지원
 - 혁신모델과 연계한 새로운 비즈니스를 지원하는 방안 고민 필요
 - 방안1) 시제품 개발, 제조, 양산과 관련된 아웃소싱 매칭 지원
 - 방안2) 플랫폼 비즈니스와 연계하여 C2C, B2C 사업 기회 제공
 - 시제품 개발, 제조, 양산과 관련된 ‘아웃소싱 매칭 지원’이란, 발주사(국내외 제조업 기반 스타트업, 중소기업, 액셀러레이터 등)와 제조업체(분야별 제조사 및 제조 전문가)를 매칭시켜주는 기업(또는 기관)을 서울시가 지원하는 방법
 - 플랫폼 비즈니스를 활용하여 제조업체들에게 기존과 다른 C2C, B2C 사업 기회 제공도 가능
 - 예 1: Airbnb Trip(에어비앤비 트립)에 제조업 체험 상품을 등록한 업체나 개인을 지원
 - 예 2: 제조업, 공예품 판매와 관련된 플랫폼(카카오메이커스, 백패커 아이디어스(idus), 단골공장, 동네 공작소 등)과의 연계를 지원

산업 집적지 ‘유형 4’는 창업이 활발하게 일어나기 시작한 업종을 지역의 주력산업으로 육성 고려

- 지역 주력산업으로의 가능성 검토 및 육성 방안 마련
 - 유형 4는 기존에 산업 거점으로서 역할과 인지도가 낮고 산업 기반도 미미한 지역이지만, 최근 창업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이 특징
 - 창업이 활발한 산업을 중심으로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을 검토한 후 결과에 따라 지역의 주력 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육성 정책 수립

산업 집적지 ‘유형 5’는 지역 자원, 역량과 연계한 산업정책 수립

- 지역 자원과 연계한 통합적 관점에서 산업 정책을 수립
 - 산업 불모지인 유형 5에 해당하는 지역으로는 동북권, 서북권의 대다수 행정동
 - 산업 불모지는 지역의 자원과 역량을 파악하여 산업 정책을 수립해 나갈 것을 권장
 - 이를 위해 서울시는 행정동별 지역 자원 조사 및 분석, 서울시 64개 대학별 특성 분석, 지역 산업과 대학의 연계 방안 등의 연구 필요
 - 특히, ‘대학교’는 인적·물적·지적·문화적 역량이 풍부한 지역의 대표 자원으로 적극 활용
 - 지역 내 대학교를 청년 창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의 거점으로 지정하여 산업 정책을 수립해 나가는 것도 고려

I 서울시 6대 신산업 거점 계획 일부 조정 검토

양재·개포와 G밸리는 업종이 아닌 성장단계별 지원 정책 고려

- 다양한 업종에서 오픈 이노베이션 추진, 스케일업 지원 필요
 - 과거 대다수 산업 정책은 ‘업종’을 구별해 지원했지만,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융복합이 중요함에 따라 업종 구분은 무의미
 - 양재·개포와 G밸리는 다양한 업종들이 산업생태계를 형성하고 있으므로 ‘성장단계별’ 지원으로 전환 필요
 - 또한, 창업 단계뿐 아니라 창업 이후 단계에서도 기업이 ‘죽음의 계곡’을 넘어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스케일업 단계까지 초점을 맞춰 지원하는 정책 필요

창동·상계의 바이오의료산업 거점 계획 일부 재고 필요

- 홍릉은 바이오의료산업 거점으로 잠재력 내재, 지역 자원이 미미한 창동·상계는 한계
 - 홍릉 인근에는 고려대, 경희대, 가톨릭대 등이 있고, 고려대학교 병원, 경희대학교 병원 등의 지역 자원을 보유
 - 바이오의료 산업 분야의 창업 기업들에게 대학병원은 실험을 하거나 장비를 테스트할 테스트베드로 매우 중요한 요소
 - 반면, 창동·상계 지역은 바이오메디컬 산업과 연계할 수 있는 지역 자원이 미미해 바이오 산업의 거점으로 적절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재고 필요

06756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340길 57

02-2149-1234

www.si.re.kr